

# 공정하고 윤리적인 비즈니스

신한금융그룹은 윤리적이고 안전한 금융 서비스를 통해 고객과 사회와의 신뢰를 구축하고, 공정 거래 문화를 정착시켜 협력회사와의 상생을 지향합니다.

윤리강령, 성희롱 예방,  
공정거래법 사이버 교육 및 서약서

22,473 명



윤리준법 교육

소비자 권익제고를 위한 과제 이행

194 개



소비자보호 프로그램

전자금융 이상거래방지시스템

FDS

모바일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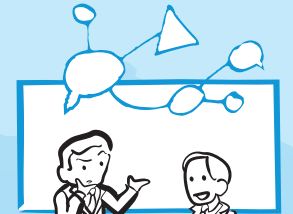
생체인증 시스템



개인정보보호 시스템

협력회사 거래만족도조사

82.6 %



협력회사 상생

## 윤리경영 강화를 통한 신뢰 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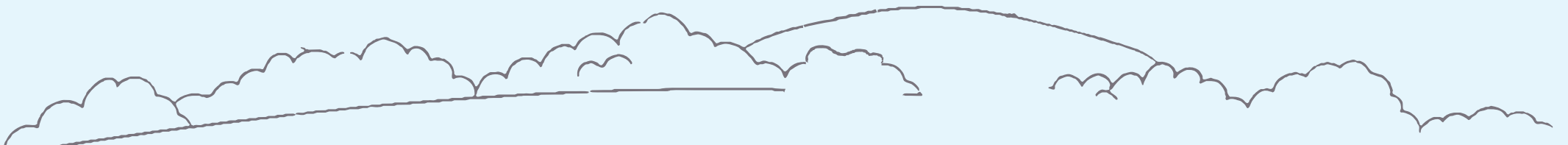
국내의 윤리기준 제정 및 적용이 점차 강화됨에 따라 윤리기준에 대한 실천력 강화와 이해관계자들로부터의 신뢰도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준법·윤리경영 이행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신한금융그룹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요구하는 수준 높은 윤리적 기업을 목표로 그룹의 모든 임직원들이 강화된 법적 규제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윤리준법 실천프로그램과 다양한 모니터링 활동을 업그레이드 하는 등 그룹의 윤리경영 실천 수준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 윤리경영의 범위 및 영역 확대

디지털화 및 글로벌 경쟁체제로의 경영환경 변화에 따라 고객정보 유출, 임직원에 의한 금융사고 등이 부각되고, 윤리경영의 관리 범위와 영역 또한 확대되고 있습니다.

신한금융그룹은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하여 불완전판매를 근절하고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그룹 정보보호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운영하고, 신기술을 도입한 시스템을 통해 고객의 소중한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합니다. 이와 함께, 협력회사와의 상생을 고려한 공정거래를 확립하고 부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협력회사와의 상생을 위한 4대 기본 원칙'을 기반으로 공급망리스크를 관리하고 강력한 공급망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CASE STUDY

## 안전한 금융거래의 첫 걸음, 정보보호

디지털 채널을 통해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이 증가함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과 금융 범죄에 안전하게 대비하는 정보보호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디지털 금융사고로 인해 다수의 고객 정보가 유출되거나 거래 시스템이 정지될 시, 금융기업의 평판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고객 보상 및 시스템 보수 등의 전사적 비용이 초래됩니다. 금융사들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여 정보 보호 리스크를 관리하고, 보안 분야를 혁신하고 있습니다.

신한금융그룹은 정보보호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외부 정보보호 전문가와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주기적인 위협정보 수집을 위해 학계, 업계, 공공기관을 망라한 미래 위협협의회를 운영하며, 화이트 해커 그룹을 통해 연간 수 시 보안점검을 수행합니다. 또한, 그룹 공동 사업으로 정보 보호 관리포털 시스템을 구축하고 보안 핵심업무 영역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그룹의 보안 수준을 확인하고 있으며, 그룹 통합 보안관제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함으로써 통합보안관제 기능을 강화 하였습니다.

FDS(Fraud Detection System)는 전자금융거래 접속 정보, 거래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이상금융거래를 탐지 및 차단하는 이상금융거래방지 시스템입니다. 신한카드의 경우 고위험 업종, 주간, 야간, 소액다발, 대면, 비대면 등 10개 업종으로 세분화하여 촘촘하고 세밀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인공지능 딥러닝 기술, 최신 머신러닝 알고리즘 등을 적용하여 탐지율을 극대화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AI 기반 머신러닝 기법 도입 후 2017년 하반기 해외 오프라인 결제 영역에서 신용카드 부정사용 발견 적중률을 89.5%에서 95%로 5.5%p 높였습니다.

신한금융그룹은 고객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 소프트웨어로 자체 개발한 패치관리시스템 PMS(Patch Management System)를 활용하여 보안을 강화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주요 소프트웨어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고 취약점을 악용하는 악성 프로그램의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는 본인인증 시스템을 강화하는 생체인증시스템을 도입하여, 정보 보안 수준을 한 단계 향상시켰습니다. 생체인증시스템을 통해 고객의 생체 정보는 사용자의 스마트폰 등 개인 단말기에, 인증 관련 정보는 금융결제원 시스템 서버에 분리 저장하여 보안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자료를 분산하고 송수신 정보를 암호화하여 안전성을 한층 높였으며, 보안카드 번호 노출을 방지하는 온도 감지 필름을 배포하는 등 개별 그룹사 차원의 노력도 전개되고 있습니다.



## 윤리경영 강화를 통한 신뢰 제고

### 윤리경영 조직 및 윤리규범 체계

신한금융그룹의 윤리경영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주회사의 준법감시인이 총괄하고 있습니다. 각 그룹의 준법감시인들은 격월로 협의회를 개최하여 내부통

제 및 윤리경영 관련 주요 현안들을 논의하고 있으며, 이를 구체화하여 적용하는 실무자 협의회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신한금융그룹 윤리강령'을 제정하여 윤리경영의 이념을 기업문화로 내재화하고, 기본원칙 준수를 강조하여 임직원의 윤리 의식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직무 수행에 대한 윤리적 기준을 확립하여 업무상의 규범적 행동력을 강화하고자 '임직원 행동기준'을 제정·운영하고 있습니다.

### 윤리실천 프로그램 및 교육

신한금융그룹은 매년 그룹 차원의 윤리준법 사이버 교육을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금융사고 예방 사례를 주제로 팝업교육을 9회 실시하였으며, 각 그룹사별 업무 특성을 고려한 자체 윤리준법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사, 영업점 및 해외 현지 지점을 포괄하는 정기 컴플라

이언스 교육이 진행되며, 내부통제 모니터링을 통해 자체점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내부통제 체제 및 시스템

신한금융그룹의 내부통제는 지주회사의 준법감시인이 총괄하며, 각 그룹사의 내부통제 활동을 관리·감독하기 위해 준법감시보고서, 내부거래보고서 등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룹사에 대한 테마점검, 내부통제 이행실태 현장점검 등을 매년 실시합니다.

2017년 초에는 각 그룹사별로 2016년도의 내부통제 체계·운영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였습니다. 2017년 2월과 8월에 각 그룹사의 내부통제부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역량향상 교육을 최초로 실시하였으며, 향후 최소 반기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 내부자 신고제도 활성화

법령과 내규, 윤리강령 등 규정 위반사항을 임직원이 신고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하고 손실 확대를 방지할 수 있도록 그룹사별 내부자 신고제도(Whistle Blowing)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신한금융그룹 전체에서 15건의 내부자 신고가 접수되었으며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임직원뿐만 아니라 회사의 협력회사와 고객 등도 참여할 수 있으며, 직접방문, 유선, E-mail 등 신고 방법의 제한 없이 상근감사위원에게 직접 고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신고자 보호에 대한 규정을 명문화하여 신고자의 비밀과 신분보장을 명시하며, 사내 게시판 등을 통해 반기 단위로 전 직원 대상 내부자 신고제도 및 절차를 안내하여 참여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윤리준법 CoP 교육

## 시장질서 교란행위 관련 교육 확대

시장질서 교란행위 규제를 위해 개정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5.7.1 시행)의 내용을 임직원들이 올바르게 숙지하고,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 회사별로 관련 교육 및 모니터링 활동을 강화해나가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그룹 공통 교육자료를 제작하고 전 그룹사에 제공하여, 관련 임직원들에게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룹사별 미공개 중요정보의 취득과 이용 가능성이 높은 부서를 분류하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부서 간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크리스트를 수립하여 점검하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상품 계좌 및 매매 신고대상에는 직원 뿐 아니라 배우자와 직계가족을 포함하여 불공정 거래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 자금세탁방지활동 이행

신한금융그룹은 국제 자금세탁방지 기구인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의 권고사항 및 특정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준수하며, 회사가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조달 등에 이용되지 않도록 거래를 모니터링하는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신한은행은 내재된 자금세탁 위험을 사전 인식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전사적 자금세탁 위험평가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자금세탁 위험 발생 연관도가 높은 본부 부서를 대상으로 위험 요인의 본질과 발생 가능성 등을 측정하였으며, 영업점을 대상으로는 영업환경, 고객특성, 거래 유형 등을 분석하여 위험 요인을 계량화하였습니다. 측정된 위험에 대해서는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자금세탁방지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조직 및 업무환경, 업무절차, 직원 위험, 정보시스템 위험 등에 대한 전사적 조직 위험 진단을 실시하고 개선하는 등 지속적으로 자금세탁방지와 관련한 내부통제 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 ‘금융소비자보호’ 체계 강화

### 신한은행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2  
개년도 연속

전부분 양호 등급

###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체계 수립

전 세계적으로 지속가능한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해 금융소비자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패러다임이 변화하며, 금융소비자의 권익 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 속에서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체계의 질적인 차이가 회사의 경쟁력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신한금융그룹은 금융소비자보호 전담조직인 ‘금융소비자보호센터’를 설치하고, 대표이사 직속의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CCO)를 선임하여 직무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관련 회의체인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를 통해 분기별 소비자보호 이슈를 공유하고, 산하에 ‘VOC 협의회’를 설치하여 고객의 제안, 불만 사항 등을 회사의 정책, 제도 및 업무에 반영합니다.

신한은행은 매월 임원회의에서 은행장 주관 하에 고객 불만 사례를 가감없이 공유하고 개선방향을 논의해 그 결과를 업무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서장 중심의 소비자보호 협의체를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 불만과 관련된 빅데이터를 구축하는 등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한편 비대면 소비자가 증가함에 따라 홈페이지의 ‘금융소비자 포털’, S뱅크의 ‘금융소비자보호채널’에서 관련 콘텐츠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소비자보호 세이프 정보 알림 서비스를 신설하여 휴대폰 문자를 통해 즉시 피해예방 정보를 제공합니다. 또한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보다 고도화된 소비자불만 처리 프로세스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신한카드는 2016년 업계 최초로 오픈한 소비자보호 관련 종합 정보 제공 시스템인 ‘소보로 시스템 2.0’을 업그레이드하여 실시간 민원 모니터링 기능을 추가하였으며, 메뉴 및 구조를 단순화하여 임직원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제고하는 등 자율적 소비자보호 역량 증대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신한은행과 신한카드는 2017년 금융감독원이 실시한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에서 전부분 양호 등급을 달성하였습니다. 신한은행은 2개년도 연속 전부분 양호를 달성한 유일한 시중은행이며, 신한카드 또한 3년 연속 업계 최고의 자리를 수성했습니다.

**완전판매 프로세스**

판매 프로세스가이드 시스템 구축	판매 후 해피콜 실시	지속적인 고객수익률 및 지표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상품 개발 및 마케팅 정책 수립 시 고객보호팀 사전 점검</li> <li>- 문제점 시정을 위해 유관부서와 사전협의 프로세스 운영</li> <li>- 문제점 발견 시 출시 및 마케팅 중단, 개선방안 제출 요구</li> <li>- 사전협의 누락 시 민원평가 감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품판매 이후 판매 과정 관련 해피콜 실시</li> <li>- 고령투자자 및 고위험 상품 관련 모니터링 강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익률관리담당조직이 상품개발부서의 수익률 관리</li> <li>- 신한생명, '품질지수 제도'</li> <li>- 불완전판매율과 대외민원 관련 지표 관리, 소비자보호 관련 지표 우수 직원에게는 인증 부여, 불완전판매 과다설계사 모집 정지</li> </ul>

**완전판매 프로세스 구축**

소비자불만을 최소화하는 금융회사의 자체적인 사전예방 체계 구축과 프로세스 운영을 통한 소비자보호 노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신한금융그룹은 불완전판매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와 시스템을 통해 사전적 소비자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신한생명은 불만처리시스템을 고도화하여 고객불만 전건을 VOC에 등록, 불만확대 가능성이 높은 유형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합니다. 신한금융투자는 5일 이내의 '가입철회 서비스'를 제공하며, 금융상품 불완전판매가 이루어진 경우 투자원금을 돌려드리는 '불만제로 서비스'로 고객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보호 규제환경 대응**

금융감독원은 2017년 1월 개정된 '금융소비자 모범규준'을 통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취약계층 보호 방안을 추구하고 있으며, 파생상품 등 고위험 상품 판매 증가에 따라 금융 소비자보호 이슈가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신한금융그룹은 고령자와 장애인을 포괄하는 금융취약계층에게 거래상의 불이익이나 불편이 없도록 대응하고 있습니다.

신한은행은 매년 금융소비자보호 종합대책을 추진하며, 2017년에는 소비자 권익제고를 위한 194개 과제를 이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방카슈랑스 취약투자자(고령자) 보호 프로세스를 강화하고, 금융 소외계층 및 중소기업 지원 상품 개발, 어르신, 장애인을 위한 '마음맞춤 창구' 운영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신한금융투자 또한 판매 금융상품에 고령자투자유의상품 여부를 별도로 표시하고 있으며, 상품 개발 과정에서 고령자 등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검증하는 절차를 규정화하였습니다. 완전판매 해피콜 진행 시에도 고령자 등 금융취약계층의 경우 전수 확인을 실시하였으며, 영업점에 별도의 지정 상담 창구를 설치하였습니다.



신한생명 소비자보호 실천 우수자 선발

## 안전한 금융정보 관리

### 그룹 정보보호 컴플라이언스 체계

신한금융그룹은 금융회사의 정보보호 책임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제도와 시스템을 개선하여 안전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시대의 안전한 정보이용을 위하여 외부 전문가와 함께 신기술 정보보호 이슈를 고민하고 점검하는 미래위협협의회를 운영하며 디지털 혁신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 운영 중인 그룹 정보보호 컴플라이언스 체계는 단순 컴플라이언스 측면의 법률 대응이 아닌 개인정보보호와 ICT보안 전 영역을 망라한 방대한 관리 프로세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그룹 차원의 명확한 목표제시, 점검, 개선 과정을 거쳐 법률적 선관주의 의무를 100% 달성한 그룹 정보보호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신한금융그룹은 신용정보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취약점 진단을 통해 그룹 내 정보보호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각

그룹사 현장점검을 수행하였으며, 관리현황 및 실질적인 정보유출 리스크 대응현황을 점검하였습니다.

그룹의 글로벌화에 따라 정보보호 영역에서도 국가별 점검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글로벌 비즈니스 지원 및 국내 수준에 준하는 정보보호 체계를 위하여 글로벌 컴플라이언스 표준을 제시하였습니다. 국가별로 현지 법률 분석 등을 통해 가이드를 마련하였으며, 현지 현장 점검을 수행하였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 조치

「개인정보처리보호방침」을 공시하여 고객이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방법과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안전조치 사항을 알리고 있습니다. 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할 때 발생하는 모든 개인정보보호 관련 의견과 불만을 신속하고 명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 담당부서와 책임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들의 신용정보 권리행사를 위한 활동을 수행하며, 고객 접근이 쉬운 홈페이지 등에 정보주체 권리보장에 대한 내용을 공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개인정보 유출 등의 중대한 사고에 대비하여 신용정보 손해배상 책임보험(법정한도 20억 원)에 가입하였으며, 고객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책임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는 총당금을 적립하여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준하는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 신한은행, 시중은행 최초 바이오 정보 분산관리

신한은행은 2015년 12월부터 셀프 banking 창구인 '스마트라운지'에서 손바닥 정맥을 인증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생체 인증 정보의 일부를 금융결제원에 분산 보관해 해킹과 위·변조 위험을 줄였습니다. 이를 통해 대포통장 등 각종 금융 사고 등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바이오 금융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에 기여하였습니다.



신한은행, 바이오 정보 분산관리



## 공정 거래 기반의 파트너십

### 협력회사 상생을 위한 원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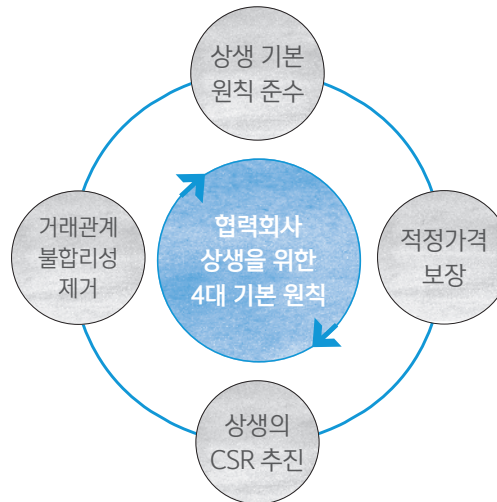
공정한 거래와 부패방지는 고객의 신뢰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금융회사 및 금융그룹의 계열사가 반드시 지켜야 할 요소입니다. 업체와의 유착 등으로 투명하지 않은 거래 발생 시,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협력회사의 계약 업무 이행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협력회사와의 상생을 위한 노력은 공정거래 및 부패방지에 있어 타 기업의 모범이자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것에 또 하나의 긍정적 의미가 있습니다. 이에 신한금융그룹은 협력회사와 공정하고 책임 있는 거래를 위해 '협력회사 상생을 위한 4대 기본 원칙'에 따라 상생 기본원칙 준수, 거래관계 불합리성 제거, 적정가격 보장 및 상생의 CSR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상생 기본원칙 준수

신한금융그룹은 거래관계에 있는 모든 협력회사와 차별 없는 공정한 거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회사 규모의 차이에 따른 입찰 제한이나 차별적인 평가를 금지하며 협력회사와 거래 시 계약방식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공개하여 투명한 거래를 원칙으로 합니다. 신한은행은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 입찰을 공시하고 있으며, 계약서 내 협력회사와 상호존중을 바탕으로 성장하는 동반자 관계를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신한카드는 모든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신한금융그룹 협력회사 행동규범 및 고객정보 보안관리 약정서를 첨부하며 구매관리규정 및 규칙에 의거한 공정한 입찰 및 업체 선정을 진행합니다. 2017년 12월에는 공정하고 실무에 적합한 계약을 위해 전체 계약규정을 개정하였으며, 표준계약서 상 구매자의 역할 및 책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거래관계 불합리성 제거

신한금융그룹은 협력회사와의 불합리한 거래관계 개선과 거래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협력회사 대상 거래만족도 조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설문결과를 바탕으로 구매절차의 개선, 실무적 프로세스 정립, 그룹사 통합행사 기획, 업무 비효율성 개선 등 협력회사와의 거래관계 개선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7년 설문 조사결과, 협력회사의 82.6%가 거래 만족도를 매우 만족 또는 만족으로 답해 신한금융그룹의 관계개선 노력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228개 업체, 응답률 30.2%)

협력회사와의 초청세미나, 간담회 등의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통해 현장의 고충을 공유하고 개선사항을 도출하고 있습니다. 신한은행은 중소 협력회사 임직원과 함께하는 상생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소리를 듣고 상생발전 방안을 공유합니다. 신한카드 역시 영업대표 초청 간담회를 통해 거래관계 시 애로사항과 상생 강화 방안 그리고 ICT 신기술 동향 등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각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통해 제안된 내용을 경영활동에 반영함으로써 거래관계에서의 불합리성을 발굴 및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 적정가격 보장

신한금융그룹은 입찰 단계부터 대금지급에 이르기까지 전 단계에 걸쳐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입찰 단계에서는 사전설명회와 일정 안내를 의무화하고, 적정가격을 보장할 수 없는 수의 계약을 지속적으로 축소하고 있습니다. 가격입찰 당일에 즉시 우선협상 대상을 통보하고, 예정가격 이내로 제출된 견적에 대해서는 재협상하지 않으므로써 적절한 보장을 합니다. 대금지급 단계에서는 대금지급 일정을 기존 30일에서 15일로 축소하여 신속한 대금 지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업무와 관련 없는 별도의 만남을 갖지 않는 등 지속적인 공정한 거래 관계 확립을 위해 노력합니다.

신한생명은 거래 투명성을 제고하고 합리적인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최저가 입찰을 지양(종합평가 입찰 시 예외)하며, 2020년까지 입찰 계약을 30% 늘리는 계획을 바탕으로 수의계약을 축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3년 내 계약체결 협력회사에게는 계약보증금을 면제하고 있으며, 품목별 분할 입찰을 실시하여 다양한 업체에 기회를 제공합니다. 신한카드 또



신한카드-협력회사 상생간담회

한 우수 협력회사 다년 계약 체결을 통해 업체의 수익구조 안정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상생의 CSR 추진

신한카드 ICT 본부는 2014년부터 ICT 협력회사 약 200여개사 중에 매년 10개의 우수 협력회사를 선정하여 상생의 지원을 실천하고 새로운 동반성장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또한 협력회사와 함께하는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ICT 전문성을 활용한 따뜻한 금융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정보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스마트 기기 교육과 전자금융사고(보이스피싱 사례전파 및 예방교육 등)에 대한 경각심 제고 교육이 시행되었습니다.

### 신한카드 ICT본부 우수 협력회사 선정 기준

선정기준	제외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년도 거래실적 有</li> <li>- 5년이상 지속적 거래실적 有</li> <li>- 신사업·전략사업 참여시 가점</li> <li>- ICT전략적 유대강화 필요시 가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인신용등급 B 미만</li> <li>- 거래기간 중 불성실 이행</li> <li>- 납입자본금 50억 원 이상 대기업</li> </ul>